

‘나홀로 졸업’ 선배를 위한 작은 음악회 감동

화순 이양초 박건우군 졸업식
후배들과 ‘졸업의 노래’ 연주
전교생 31명 ‘마지막 앙상블’
박군 “많은 축하 잊지않겠다”

“마지막이라 틀리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함께 연주해 준 후배들이 고맙고, 그동안 가르쳐주신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13일 제1회 졸업식이 열린 화순군 이양초 이양초등학교 강당. 바이올린과 비올라, 첼로로 편성된 현악오케스트라의 ‘졸업의 노래’가 울려 퍼졌다.

‘나홀로 졸업식’을 하는 박건우(13)군을 축하하기 위한 후배들의 깜짝 공연이었다. 주인공인 박군도 무대에 올라 정들었던 학교에서의 ‘마지막 앙상블’에 참여했다.

전교생 31명의 작은 학교인 이양초등학교는 올해 단 한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양초는 과거 인근 탄광의 변성으로 복적였으나, 석탄산업의 쇠퇴와 함께 자연스레 하나 둘 떠나면서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 소규모 학교가 됐다.

이날 졸업식은 졸업생이 한 명이어서 소박했지만 분위기는 밝았다.

풍선과 리본으로 가득한 졸업식장에는



지난 13일 화순군 이양초등학교에서 열린 제1회 졸업식에서 ‘나홀로 졸업식’의 주인공인 박건우(13·왼쪽)군이 후배들과 함께 연주를 하며 석별의 정을 나누고 있다.

교사와 학부모를 비롯해 마을 주민들이 참석해 자리를 가득 빛냈다. 강당 곳곳에 박군의 학교생활이 담긴 영상이 상영됐다.

또 1학년부터 5학년까지 30명의 후배들이 무대에 올라 앙증맞은 표정으로 박군을 응원하는 등 웃음 가득한 졸업식이 이어졌다.

박군은 답사에서 “혼자 졸업했지만 많은 분들이 축하해줘 졸업식이 외롭지 않았다”면서 “특히 후배들의 응원에 힘이 난다. 중학교에 가서도 잊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다부진 포부를 밝혔다. 박군은 능주중학교로 진학한다.

양은하 이양초 교장은 “폐광마을에 있

는 학교여서 자칫 졸업식에 가난함이 내비치지 않을까 내심 걱정했다”며 “하지만 졸업생과 재학생 모두가 함께 연주하면서 떠나는 졸업생에게는 긍지와 자부심을, 남아있는 재학생들에게는 희망을 심어준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글·사진=김진수기자 jeans@

‘덧글 판사’ 사표 수리

대법 “공정성 의심 법관직 유지 불가”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덧글을 상습 작성한 A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대법원은 14일 “A 부장판사가 소속 법원장을 통해 여제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사표는 16일자로 수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영역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이고 자연인으로서 사생활의 영역에서 벌어진 일로 덧글을 올릴 당시 법관의 신분을 표시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어떤 표시도 하지 않았다”며 “이런 행위는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직무상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을 통해 편향되고 부적절한 덧글이 해당 법관이 작성한 것이 일반국민에게 노출됨으로써 해당 법관이 중전에 맡았던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법관의 직을

유지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애초 A 부장판사가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데 대해 징계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었으나 결국 본인이 사직서를 내자 이를 수리하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A 부장판사는 자신의 덧글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온 뒤 지난 12일부터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다가 결국 사직서를 냈다.

수원지법 소속이었다가 지난 10일 다른 법원으로 전보 발령(2월 23일자)을 받았으나, 사직서가 수리되면서 법복을 벗게 됐다.

A 부장판사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아이디어를 바꿨으며 포털사이트 기사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덧글 수천건을 작성한 것으로 최근 드러나 물의를 일으켰다.

/연합뉴스

고용부 “노동법 위반 적발 즉시 처벌”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손질’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를 현장에서 감독하는 근로감독관의 집무규정을 대폭 손질한다.

15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근로감독을 벌여 위반사항을 적발하더라도 먼저 시정기회를 주고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선 시정, 후 처벌’ 방식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국회와 노동계가 ‘실효성 없는 솜방망이 처벌만 남발하고

있다”며 ‘위반 적발시 즉시 처벌’을 적극 요구하고 있어 고용부는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현재 관계 부처와 지방고용노동청 등을 상대로 ‘위반 적발시 즉시 처벌’ 기준을 적용할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 의견수렴을 마치고 내부적으로 최종 검토안을 마련하는 등 상반기까지 집무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합뉴스

‘땅콩 회항’ 조현아 항소

“양형 부당” 1심 불복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조 전 부사

장 측 변호인은 선고 하루 만인 이날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1심 재판의 사실 오인,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사건이 2심 재판부에 배당되는 대로 구체적인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18
해질녘 18:15
달돋이 04:36
달질 15:17

봄 재촉하는 비 소식

흐리고 비가 오겠으며 오후엔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 있겠다. 예상 강우량 10~40mm.

◇지역별 날씨 (℃)

광주	흐리고 비	7/10	보성	흐리고 비	4/8
목포	흐리고 비	6/11	순천	흐리고 비	6/9
여수	흐리고 비	6/8	영광	흐리고 비	7/10
나주	흐리고 비	6/12	진도	흐리고 비	7/12
완도	흐리고 비	7/10	전주	흐리고 비	5/9
구례	흐리고 비	4/9	군산	흐리고 비	5/8
강진	흐리고 비	5/10	남원	흐리고 비	4/9
해남	흐리고 비	7/11	흑산도	비온뒤 갬	7/10
장성	흐리고 비	5/10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앞바다	동~남동 0.5~1.5	서~북서 0.5~1.5
남해 앞바다	동~남동 1.0~2.0	서~북서 1.0~2.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동~남동 1.0~2.0	동~남동 1.0~2.0
남해 서부 앞바다(서)	서~북서 1.5~2.5	서~북서 1.0~2.0
남해 서부 앞바다(남)	동~남동 1.5~2.5	동~남동 1.5~2.5

목포	밀물	썰물
	12:04	04:49
	00:00	17:48
여수	07:28	00:29
	19:24	13:33

◇생활지수

동파	25
운동	20
빨래	20

◇주간 날씨

17(화)	18(수)	19(목)	20(금)	21(토)	22(일)	23(월)
4/6	0/8	-1/10	0/11	2/11	3/9	1/9

전남교육청, 여수교육장 등 주요보직 인사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재)은 3월1일자로 7개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주요 보직자 1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여수교육청 교육장에 김재인 본청 교원인사과장이, 구례교육장에 장시준 미래인재과장이, 화순교육장에 권영길 정책기획관이, 무안교육장에 송용석 중등인사담당 장학관이 임명됐다. 또 담양교육장에는 공영휴 영강초 교장이, 보성교육장에는 정영배 매안초 교장이, 완도교육장에는 유권철 월야초 교장이 임용됐다.

본청 정책기획관에는 정귀남 광양교

육청 교육지원과장이, 체육건강과장에는 장길선 순천여중 교장이 발탁됐다. 교육진흥과장에 나동주 장학기획담당 장학관이, 교원인사과장에 배진 유초등 인사담당 장학관이, 미래인재과장에 박선미 정책기획담당 장학관이 내부 승진해 자리를 옮긴다.

직속기관장으로는 교육연수원장에 김화현 목포교육청 교육지원과장이, 학생교육원장에 염세철 본청 체육건강과장이, 학생교육문화회관장에 정연국 구례산동중 교사가, 과학교육원장에 조중현 화순이산고 교장이 임용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국 총학생협의회 나주서 출범 준비위원회 열어

전국대학 전·현직 총학생협의회회 준비위원회(이하 총학준비위)는 14~15일 나주 중흥 골드스파리조트에서 준비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광주·전남대학 총학생협의회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전국 52개 대학에서 전·현직 총학생회장 100여명이 참석해 분과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앞으로 일정을 논의했다.

총학준비위에는 서울·경기 21개 대

학, 충남·충북 15개 대학, 경남·경북 4개 대학, 부산·강원 7개 대학, 전북 13개 대학, 광주·전남 14개 대학 등 71개 대학이 참여했다.

총학준비위는 4월 총회와 출범식을 열고 지역별로 정당, 지자체와 정책간담회 등을 열어 등록금 문제나 학과통폐합, 공공복지 등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